

#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농지 투기 막는다

### 4월 농지원부 농업인별→필지별 작성...면적 제한 없이 모두 작성 5월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확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신설...GIS기반 농지관리체계 구축

올해 2분기부터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며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뒷받침한다. 다음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새롭게 설치하며 농지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주간 농업농촌식품 동향'을 발표하며 이처럼 올해 달라지는 농림·수산·식품 정책동향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부터 농지원부는 농

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농지 투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농지원부는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      |                  |
|------|------------------|
|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농지필지(지번) |
| 작성대상 | 농지 1천㎡→모든 농지     |
| 관리주체 |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

기본에는 농업인별로 작성했지만 오는 4월부터는 필지별로 작성된다. 작성 대상도 1000㎡ 이상에 한정했지만 면적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농지원부 관리는 농업인 주소 1지 관할 행정청이 담당했지만,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관리 주체가 바뀐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는 오는 5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 역시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하나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이 확대된다. 추가된 사항으로는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이다.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토지를 공유해 취득할 때는 소유자별로 농지위치를 특정해야하고 증명서류도 꼭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때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내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달 18일부로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한다.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한계를 보완하고 농어촌 공사에 농지상시관리조사 기능을 부여해 농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설되는 농지관리은행원은 지리정보시스템

(GIS)을 기반으로 한 농지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과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상시 관리·조사한 내용이 반영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지자체 공무원을 연 2회 교육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의 율 하반기에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푸드플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귀농귀촌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이 연말 완성된다. '농어촌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앞줄 왼쪽 세 번째)와 광주 15개 농·축협 판매 담당자들이 '설 명절 직거래장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광주 15개 농·축협, 설 명절 직거래장터

### 26~27일 선물·제수용품 등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27일 '설 명절 직거래장터'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직거래장터는 26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27일 광산구 우산동 농협 광주본부 인근에서 열린다. 매년 광주 농산물 사주기에 동참해온 광주지방경찰청도 예약주문방식으로 명절 직거래장터에 동참한다. 행사에서는 광주지역 15개 농·축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50여 개 우수 농·축산물을 만날 수 있다. 직거래를 통해 선보이기 때문에 시중보다 10~

30% 가장 저렴하다. 농협계통이 취급하는 명절선물용 상품, 제수용품 등도 매대를 채운다.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 13일 지역본부에서 15개 농·축협과 2022년 설 명절 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각 농·축협 판매사업 담당자들은 설 명절 직거래장터 품목선정 및 운영계획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고성신 광주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명절직거래장터를 통해 광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선물용 과일 및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유통비용을 절감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공공급식 운영 자금 150억 용자 aT, 다음달 4일까지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150억원 규모 '공공급식 운영활성화자금' 용자 신청을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지역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농산물 구매자금 30억원이 별도 책정됐다. 공공급식 운영활성화자금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와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업체, 로컬푸드직매장 등이다. 지원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연 3%(농업경영체 연 2.5%), 변동금리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에 따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 서삼석 의원, 적정 수매가 책정 촉구

쌀 20만에 대한 정부의 추가 매입이 결정되면 서 이달 중순 이후 결정될 수매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보도자료를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를 책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그 다음주인 24일 이후 수매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돼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쌀 31만톤이 과잉 생산될 것이 전망되면서 농민들은 10월부터 정부 추가 매입(시장격리)을 요구했지만 연말에야 시행 결정이 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서 의원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시기상의 문제로 역공매 방식으로 적정가격 보다 낮게 수매가격이 결정된다면 애초 정책 목표였던 가격 회복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쌀 가격 저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목표 가격이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변동직불제가 2020년 폐지되는 대신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 개정 도입된 것이다. 서 의원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표 이후에도 아직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장격리임을 감안해 법 취지에 맞게 적정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돼 가격 회복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경원 '농업전망 2022' 19~20일 온라인 개최

탄소중립시대 올해 농업을 전망하는 발표와 토론이 오는 19~20일 이틀 간 진행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2' 대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25회를 맞은 이 대회는 농업전망 홈페이지(aglook.kr 또는 농업전망.kr)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대회 첫날 1부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 2022,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 특별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정민국 농업관측센터장이

'2022년 농업과 농가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신년좌담회가 열린다. 2부는 '2022년 농정 현안'이라는 주제로 아래 '인구 감소시대의 농촌 재생' '탄소중립과 농업의 전환' '농산업을 새로운 도전과 기회' '농산물 유통 혁신' 등 4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한다. 이튿날 3부에서는 '산업별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업근체소, 식량작물, 우제품, 양념체소, 과일, 가공류, 국제곡물, 과제, 단기임산물 등 9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  |   |   |
|--|--|---|---|
| <h2>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h2> <p>기초반, 중급반</p>  | <h3>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h3> <p>(유치권 전문, 법지)</p>                                   |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중심상업지역<br/>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gt; 9억</p> <p>급매가 -&gt;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 <h3>신축원룸매매(신축)</h3>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수익 750만</li> <li>● 년수익 9000만</li> <li>●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li> </ul> <p>★ 4개동(월수익 3000만) =&gt; 년수익 3억6천<br/>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
|  | <h3>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h3> <p>●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br/>(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   |   |
| <p><b>광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gt; 최저가 1억7천 (1/21)</li> <li>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gt; 최저가 1억1천 (1/27)</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gt; 최저가 66억 (2/3)</li> <li>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li>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gt; 최저가 5억6천 (2/3)</li> <li>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gt; 최저가 2억2천 (2/3)</li> </ul>  |  |   |   |
| <p><b>전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gt; 최저가 5억1천 (1/10)</li> <li>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gt; 최저가 14억 (1/10)</li> <li>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gt; 최저가 22억 (1/10)</li> <li>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gt; 최저가 3억5천 (1/20)</li> <li>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gt; 최저가 6천1백 (1/27)</li> <li>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gt; 최저가 2억9천 (2/3)</li> </ul> |  |   |   |
| <p><b>시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gt; 13억 (1/13)</li> <li>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gt; 최저가 32억 (1/25)</li> </ul>   |  |   |   |

010-6670-9800